

## [알리는 말씀]

- \* 오늘은 서울샘터교회의 창립 1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울샘터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 예배 후에는 2022년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오늘 설교복기는 없으며 전교인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시간이 되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 오는 12월 25일(성탄절)에는 여성플라자 대관이 가능하여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23년 1월 1일에는 대관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지난주일(11월27일) 헌금: 280,000원(주일헌금 50,000원, 통장헌금 230,000원)  
교회 온라인 통장: 카카오톡 3333-14-2466417 박수진

2022년 11월 재정보고				
수입			지출	
주일헌금	1주	480,000	감사비	1,200,000
	2주	30,000	대관비	316,800
	3주	170,000	주보비	30,000
	4주	50,000	구제비(채움누리학교)	50,000
			선교비(뉴스앤조이, 새물결플러스)	100,000
통장헌금		1,200,000	간식비	80,740
선교헌금		100,000	교회집기 보관비	70,000
이자		1,069	물품비	15,200
			친교식사비	216,000
수입계		2,031,069	지출계	2,078,740
* 수입 - 지출 ( - 47,671 )			전월이월액 :	16,031,856
			현 잔액 :	15,984,185

- \* 12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 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장소
12월 4일	정용섭목사	김기범(사회) 이기령(봉독)	양혜선집사	박은숙, 박정덕/시청각실
12월11일	이춘우목사	고중흥집사	이기령집사	오미영, 이유선/아트갤러리5
12월18일	박재진목사	오미영집사	양혜선집사	박수진, 김희란/아트갤러리5
12월25일	김동호목사	박수진집사	이기령집사	박은숙, 김용성/아트갤러리5

## 서울샘터 교회 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2년 12월4일

대림절 둘째 주일  
세계 교회력 「가」해 2주

♫ 오늘의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 11:9)



사람은 늙어도 젊게 살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궁극적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한에서 그렇다. 여기 노래하는 한 노파를 그린 그림이 있다. 제목: 노파의 노래, 연대: 1620년대, 화가: Gerrit van Honthorst(1590-1656), 폴란드 바르샤바 Narodowe 미술관 (반더빌트 대학교 신학대학 도서관 사이트에서 퍼온 사진)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주일 공동예배: 4:00-5:10/ 창립기념 행사 : 5:10-5:20/ 총회 5:20-6:00  
목사: 정용섭 010-8577-1227,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churchs>

#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사회자 (김기범 집사)

현대인들은 지난날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도 영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적개심과 분노에 가득한 말과 행동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평화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 98장 (예수님 오소서)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창조와 종말의 능력이신 하나님,  
죄와 죽음이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매일의 삶을 거룩한 싸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임마누엘'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그 어떤 좋은 일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을 모면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진리로 인식하고 믿는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삶의 궁극적인 토대로 삼고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 (Sanctus) ... 다 함께



분할례 ... 다 함께

집례자: 우리가 이 빵을 떼서 서로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친교입니다(막 14:22, 요 6:56-57, 고전 10:16).

회중: 아멘.

집례자: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친교입니다(막 14:24, 요 6:56-57, 고전 10:16).

회중: 아멘.

간구기도 (하나님의 어린양) ... 다 함께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베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은혜를 허락해주십시오.

성찬참여

집례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희생하신 어린양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회중: 아멘.

[집례자의 안내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와서 빵과 포도주를 받는다.]

감사기도 ... 집례자

감사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 (시므온의 노래) 3회 ... 다 함께



알림 ... 목사

##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3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 성 찬 예 전

성찬찬송 232장 (유월절 때가 이르러) 3~4절 … 다 함께

준비기원

집례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땅과 인간 노동의 열매로 허락하신 이 빵이 곧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중: **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집례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인간 노동의 열매로 허락하신 이 포도주가 영원히 하늘나라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중: **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집례자: 들판의 밀알이 변하여 빵이 되고, 포도밭의 포도송이가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기를! 아멘.**

인사나눔

집례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계십니다.**

집례자: 주님을 향해 마음을 드높입니다.

회중: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높입니다.**

성령임재 기도 … 집례자

성찬 제정사

집례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손에 들어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들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전 11:23-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중: **아멘.**

집례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행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회중: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고**(마 27:27-50),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으며**(눅 24:44-48),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행 1:9-11).

**아멘!**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자신에 대한 지나친 염려, 또는 안일하거나 나태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대림절 중임에도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우리는 의심이 많습니다. 사람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존의 근거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수없이 들었어도 온갖 망상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참회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선포

목사: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없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교회의 지난 2천 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회 기도로 바친 모든 것은 용서받았으니 기뻐하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영광송) … 다 함께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102장 (영원한 문아 열려라) … 다 함께

## 말 씬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거입니다.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본문을 받들어 읽는 이와 그 말씀을 해석하여 선포하는 이와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영을 허락해주시옵시요.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이사야 11:1~10 ... 이기령 집사

성시교육 시편 72:1~7, 18~19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주님이여 분별력을 우리왕께 내리시고/ 주님이여 곧은마음 왕의아들 주옵소서  
**-주의정의 가지고서 옳은판결 실행하며/ 가난한자 온전하게 지켜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왕의통치 평화세상 바탕되니/ 높은산도 작은산도 평화노래 하리로다  
**-가난한자 어려운자 맏힌한을 들어주고/ 약한자를 누르는자 내리치게 하옵소서**  
 낮익해가 다닿도록 밤의달이 다닿도록/ 영원무궁 우리의왕 통치하게 하옵소서  
**-풀베어낸 자리위에 빗줄기가 내림같이/ 마른땅을 적셔주는 소낙비가 내림같이**  
 선한일들 펼쳐가니 의인들이 생겨나고/ 평화로움 넘쳐나서 늘환하게 비추리라  
**-하나님을 경배하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놀라운일 행하심이 오직그분 뿐이로다**  
**-찬양하라 주의이름 온땅위에 가득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아멘**

둘째말씀 로마서 15:4~13 ... 이기령 집사

\*셋째말씀 마태복음 3:1~12 ... 이기령 집사

\*응답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92장 (아멘) ... 다 함께



설교 여호와를 아는 지식 ... 정용섭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100장 (미리암과 여인들이) ... 다 함께

## 봉 헌 예 전

신앙고백 니케아신조 ... 다 함께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의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음 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본질이 같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헌금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1, 2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